그림자가 없는 사람들, 무영(無影)인간

(고전12:12~27)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 무영(無影)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터키의 카프카라는 별명을 가진 터키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문학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산 알리 톱타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 소설이 지향하는 주제를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묻는 내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가치 있는 실존, 의미 있는 삶을 산 증거'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면 반드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즉,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분명하다면, 그 증거로 그림자가 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살고는 있지만 삶의 의미가 불확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나의 의미를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림자 없는 사람들'에서의 그림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적 인격체라면 그림자가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톱타시의 소설에서의 그림자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 붙인 이 그림자는 참 신앙적 인격체로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림자가 없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놈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참 신앙적 인격체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다가오면 그 빛을 차단함으로써 뒤쪽에 생기는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서 그림자가 안 생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창문틀에 끼어있는 유리 정도나 될까요?
유리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입니다마는 빛이 올 때 그 빛을 통과시켜서 유리창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겨울에 햇볕을 받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그림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뒤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림자가 형성된 그만큼 은총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한 순간도 어느 공간도 사랑이신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은총으로 메워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만큼의 그늘은 그렇게 촘촘히 내려오는 은총이 닿지 않는 구멍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수능시험을 못 봐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림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그물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거론하시고, 은사의 우열을 따지며 갈등을 빚는 고린도교인들에게 '대체 교회란 무엇인데 너희가 그러한 은사를 놓고 경쟁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지체 간에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하겠느냐? 아니면 발이 손더러 내가 더 월등하다고 하겠느냐?
손이 아프면 발을 포함한 모든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발가락 하나가 다쳐도 몸 전체가 아픈 것이 사람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더 약한 지체는 있을지 모르나, 필요 없거나 열등한 지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없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귀족이든, 그 어느 것도 상관없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 간에 갈등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한 성령으로 통일된 교회!
아! 참으로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러므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중에 이런 교회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이 계십니까?
평생 제가 직접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교회를 섬겼든지 한 교회가 한번 따져보니까 11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교회도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A장로님이 B장로님을 인정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지체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교인과 교인 간에 이런 지체의식에 의해서 온 교회가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church life가 진행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찌그렁거리고 빠그렁거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소식을 접해본 너무나 많은 교회들, 갈등과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혹시 조용한 교회가 있다면 내막을 살펴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갈등과 분쟁이 없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과 당회원들 간에 주고받음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적당히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얻을 것은 얻습니다.
장로님들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봐야 시끄러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목사님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은 목소리가 큰 박 집사님 앞에서 시끄러우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넘어갑니다.
이건 성령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다 생존적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유기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통일된 교회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영(無影)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빛의 영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빛 속에 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빛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뜻,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돼야 하는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당회에서 세운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고 오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체의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일된 하나의 몸으로 이루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지체로서 있는 개교인 교인들이 전부 다 이 빛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무영인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한 교회의 지체인 나를 향해 오실 때, 그만 나에게서 막혀버림으로 내 뒤에서 그림자가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늘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의 그림자를 붙이고 다니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아버지의 뜻으로 촘촘히 짜여 져야 되는 교회 안에 내가 존재하는 만큼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늘을 만드는 분이라면 그 그늘은 교회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당회원과 목사님이 그늘을 붙이고 다니는 자들이라면 그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 닿지 않는 어두움에 빠져들고 말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빛이신 성령님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닿지 않는 그늘로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유리처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에요.
내 출신에 대한 자각,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누구의 아들딸이다, 이 세상적인 출신과 신분에 대한 자각과 나의 독특한 생각과 의견과 판단이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각 방면에서 피둥피둥하게 살아있어서 성령의 빛이 막혀버리고 뒤에 그림자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통일된 유기체로 연관돼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 그림자를 없애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평신도 새신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단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림자 없애기에.

그림자 없애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십자가를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교회가 모든 조직과 역량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교회가 사업한다, 프로그램 한다, 선교한다, 예배당 건축한다, 이거 다 2차적인 문제에요, 선교조차도 2차적인 문제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모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일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삶, church life의 알파요 오메가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십자가 심기요, 교인들 마음에 십자가 심기요, 목사님 자신의 마음에 십자가 심기요, 심겨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기입니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하게 될 때에,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에 모여 그저 내가 죽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교회로서 해야 될 사업, 선교, 예배당 건축, 봉사, 구

제, 이 모든 일은 나를 통과하시고 김 집사님을 통과하시고 장로님을 통과하시고 목사님을 통과하신 빛이신 성령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론은 맞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을 모른다는 말씀을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 교회인지 여하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수만의 교회 목사님들이 숫자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거의 모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전국 모든 교단을 총망라해서 천 명 넘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5%가 안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누구보고 현실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20년 30년 평생 목회해도 백 명을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몇몇 부흥하는 덩치 큰 몇 교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해서, 수만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시선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고 개탄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20년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의 관심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늘리느냐에 가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총력을 기울이는 포인트를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숫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내가 목회한 것을 변명할 것입니까?
그게 진정한 목회였다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큰 교회 보지 말아요.
큰 교회를 적대시할 것도 아니지만, 큰 교회를 추종할 것도 아닙니다.
적대시하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추종하는 것은 불신앙과 영적 비굴함의 표현이에요.
나는 나고, 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목회에 교인이 두 명이라면, 세 명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목사님과 두 명의 교인이 총력을 기울여서 세 명 모두에게 십자가가 깊이깊이 뿌리박고 모일 때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일을 교회 안에서 반

복하는 겁니다.
내 염려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의견 죽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 명의 마음이 그 10년 된 개척교회로부터 온전히 다 승천하신 주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목사님 포함해서 세 명인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빛이신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과하면서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 두 명의 교인을 통과하면서 교회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제, 한번 목숨 걸고 마지막 목회열정, 마지막 신앙생활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대상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목사님으로서 목회할 때와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직장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겁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죽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동행해주실 거예요.
아예 마음이 없는데요, 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초장에 '아니, 죽으면 어떻게 직장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 죽으면 어떻게 자식 키우고 부부간에 대화라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버려요.
그럴 마음을 갖고 한번 대해보세요,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내가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있다면 직장에 있는 동안에 나를 향하신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께서 날라서 내게로 가져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성령님이 통과되어야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려면 속에 내가 없어야 돼요.
자꾸 그 나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걸리고,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걸리고, 내 힘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돈 못 벌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직장상사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그늘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못돼먹은 직장상사라도 그 사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있는 주님이 빌라도 앞에 있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만을 통과시키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못된 직장상사가 들끓어도, 그 앞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여기다 걸자 이겁니다.
승진에 걸고, 월급에 걸고, 교인 숫자에 걸고, 이러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걸어서 그림자 없는 무영인간으로 나머지여생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사람들.
내가 그림자 없이 살아가자, 어디를 가든지 내 뒤에 그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직장을 위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능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평생 벌려고 했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 돈 버는 일, 평생 교인을 모으려고 했어도 요것밖에 안 되는 목회, 이런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그림자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한 총력을 기울임을 통하여, 정말 그늘 없는 삶, 은총의 구멍이 뚫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